2007 강릉단오제 <학술 세미나> 자료

주제 : 강릉단오제와 콘텐츠 : 축제 상품 개발 및 명품화 방안

세시풍속과 콘텐츠

장정룡 (강릉대 교수)

1. 세시풍속과 수릿날

歲時風俗은 세시와 풍속의 복합어다. 歲時는 의미상 한 해와 네 계절을 뜻하지만,[1] 洪錫謨(1781~1857)의 언급과 같이 無時와 상대되어 특별한 의미의 날로 인식된다.[2] 세시풍속은 "자연신앙과 조상숭배를 바탕에 깔고 종교·주술적 복합행위와 놀이가 한데 어울린 철갈이행사"[3]로서 계절습속 관행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관습적·전승적·주기적·의례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양식과 생활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4]

세시풍속은 年中行事라는 용어이외에도 歲時節日, 歲時節令, 時令, 俗節, 月令, 節令 등으로 쓰이는데[5] 고려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九大俗節,[6] 四名節,[7] 五節享[8]으로 불렸다. 서양에서는 Cyclical rite, Seasonal festival, Calender custom이라 한다.

세시풍속은 기본적으로 역법에 의해 순행되며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천체력,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연력, 전통적 생활이 근간되는 의례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시풍속은 日月星辰의 天象, 氣候變化의 氣象, 動植物 季節的 變化의 物象으로 구성되는데,[9] 이러한 원칙에 따라 觀象授時와 對應天時, 應天順時의 근본적 원리를 지닌다.[10] 鄭東愈(1744~1808)는 《晝永篇》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曆이란 것은 무엇 하는 것인가. 성인이 천하를 백성들로 하여금 사계절의 차례에 어둡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堯典에 말하기를 "하늘에 공순히 따라서 조심하여 사람에게 때를 가르쳐 주라."고 하였으니 曆의 중요한 것은 때를 가르쳐 주는 데에 있을 뿐이다. 그것과 초하루와

---

1) 《辭源》"歲年也, 時四時也"
2) 洪錫謨, 《東國歲時記》正月 元日 "甑餠以歲時禱神 及於朔望 及無時禱神 亦如之"
3) 金烈圭, 〈특집 한국인의 세시풍속, 믿음과 놀이가 어울린 철갈이의 살림〉, 《한국인》, 사회발전연구소, 1986, 42쪽
4) 張正龍,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 집문당, 1988, 18쪽
5) 《辭海》"時令隨時之政令也 今謂歲時節令爲時令"
6) 《高麗史》卷84, 志卷38, 刑法1, 禁刑 "俗節 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 秋夕"
7) 《東國歲時記》3月 寒食, "都俗上墓澆奠用 正朝 寒食 端午 秋夕 四大名節"
8) 《東國歲時記》3月 寒食, "今之與正朝 端午 秋夕爲四節祀 卽東俗也 朝家則幷 冬至爲五節享"
9) 장정룡, 〈한·중단오절 풍속과 근원설화〉, 《강릉단오제 현장론 탐구》, 국학자료원, 2007, 204쪽
10) 張正龍, 〈端午節傳承與神話探討〉臺灣中央硏究院民族學硏究所 月例演講論文, 2004. 11.1

반달인 때와 보름과 춘분·추분·동지·하지와 경칩은 즉 때를 가리키는 일이고, 간지로써 날을 기록하고 별 이름으로써 열흘을 기록하는 것은 곧 때의 躔度를 보이는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음력 5월 5일 단오날에 행해지는 향토축제다. 단오의 우리말은 수릿날이고 이날은 곧 태양의 명절이다. 단오명절을 지내기 시작한 것은 신라 때로 '단오'를 향찰로 표기하여 '수리'라 부른 것으로 보면 이 명절의 연원은 삼국시대까지 소급 추정된다. 고려 말 元天錫(1330~?)은 "新羅是日號爲車"라 하여 신라 때부터 '수리'라 불렀음을 추론하였다.[11] 한글로 '수리'라 기록한 〈동동〉 이외 문헌에는 한자로 '車' '車衣' '戌衣' '戌依日' '水瀨' 등으로 다르게 쓰였으나 향찰식 표기이다.

◦五月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침藥은 (樂學軌範 '動動')
◦俗以端午爲車衣(金富軾, 三國史記 卷二, 文武王)
◦端午俗稱戌依日, 端午衣曰戌衣 (유만공, 세시풍요)
◦端午俗名戌衣 戌衣者 東語車也(洪錫謨, 東國歲時記)
◦國人稱端午曰水瀨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金邁淳, 冽陽歲時記)

이처럼 '수리' '술의'는 高·上·日·神을 뜻하는 고대어로 삼국시대 5月과 10月의 農功始畢期에 태양신에게 제사한 신앙적 기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12] 이에 대해 양주동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投飯水瀨는 말할 것도 없고 車輪狀 艾餻로써 수리를 설명코저 함도 本末의 顚倒이다. 수리의 語原은 차라리 高·上에서 찾을 것이다.…上과 峯(峯수리-峯우리)의 古訓이 並히 수리(特히 峯의 義의 '수리나미고개'는 車踰로 對譯됨)인즉 무릇 '높은꼭대이이'가 수리이니 端午日의 午時를 漢語에도 '天中'이라 함과 合致된다. 이러한 推想은 一方 嘉俳의 語原이 '半·中'의 義임과 對照하야 興味있는 일이다."[13]

《東國歲時記》에 "단오의 속명은 술의일로서 술의는 우리말로 수레바퀴를 뜻한다."라 하였는데[14] 여기서 수레바퀴는 태양이며 수레바퀴를 돌리는 신은 태양신으로 유추된다. 그것은 고구려 고분유적인 중국 집안 5호 무덤 천장의 수레바퀴를 끄는 신선 그림이 새겨져 있음에서 유추된다.[15] 따라서 단오날에 먹는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든 시절음식의 車輪形 수리치떡은 태양을 상징한 것으로 양기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해석된다.[16] 이 날을 '水瀨日'이라

---

11) 元天錫, 《耘谷詩史》卷5
12) 신라에서는 정월에 日月神에게 하례하는 궁중풍습이 있었다. 《隋書》卷81, 東夷傳 新羅, "每正月旦相賀…其日拜日月神"
13)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54, 103쪽.
14) 洪錫謨, 《東國歲時記》, 端午條, 1849년.
15) 《고구려문화》, 사회과학출판사, 1975, 도판 39쪽.
16) 장정룡, 《강릉단오제》, 집문당, 2003, 147쪽 "단오의 수리치떡은 떡이 아니고 약이고 태양이다."

하여 밥을 水瀨에 던져 屈三閭를 제사한 것에서 나왔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중국기원설에 따른 것이다.[17]

단오날에 먹는 떡을 '수리치떡'이라 하는데 이것은 쑥으로 만든 것이다. 즉 戌衣草는 쑥과 같은 종류로 《本草綱目》에서는 狗舌草라 하여 천년 묵은 좋은 쑥을 지칭했다. 산에서 나는 수리치는 쑥의 변종으로 불을 붙이는 부시깃을 하는 일이나 식용으로 먹고 향기로운 풍미는 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쑥잎 등쪽의 젓빛 흰 솜털을 긁어모아 붉은 도장밥이라는 인주를 만든다. 단오날에 붉은 칠로 부적을 박았던 당시 쑥으로 도장을 찍는 인주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강릉단오제는 행사내용에 있어서 용선경주 중심의 현존 중국 단오풍속과 달리, 신화를 중심으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굿과 제의, 탈놀이, 농악, 민요, 그네뛰기, 씨름 등 전통적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풍농기원, 재액방지, 세속적 해방일 등의 기능을 갖는다.[18]

5월 단오무렵에 행해지는 播種儀禮는 10월 收穫儀禮와 함께 農功始畢期의 축제며 한국세시풍속의 교차성으로 파악된다. 즉 5월의 파종의례와 10월의 수확의례는 수릿날과 上月을 동의어로 본 것으로도 알 수 있다.[19]

이처럼 한국에서는 부족국가부터 自然曆과 生業曆에 따라 成長儀禮로서 端午를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삼국시대에 들어와 민속명절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儀禮曆으로 확정된 것은 고려시대(918~1392) 이후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오명절행사가 강조된 시기는 조선시대다. 단오날에는 첩자를 승정원에서 만들어 대궐에 올리면 대궐에서는 관상감에서 주사로 쓴 천중부적을 여러 신하들에게 내렸다. 또한 공조에서 단오부채를 만들어 대궐에 올리면 임금이 신하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端午扇이라 하였다.

《京都雜志》에서 "서울의 옛 풍속에 단오날 부채는 관원이 아전에게 나누어주는데 동짓날의 달력은 아전이 관원에게 바친다. 이것을 夏扇冬曆이라 한다."[20]는 나눔의 미풍양속이 계승되었다.

단오절은 양기가 극성에 달하는 때이므로 다양한 행사와 음식 등을 통해 질병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었다.[21] 중국에서는 '善正月, 惡五月' 또는 '五月爲惡月'이라고도 한다.[22] 중국의 단오민속은 그 유래가 楚國 문장가인 屈原과 관련하여 물에 빠진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 龍舟競渡를 하고 粽子를 물에 던지는데 이러한 유래는 특정 인물과 관련지은 것으로 실질적인 단오명절의 원류로 보기가 어렵다.

2. 세시풍속과 강릉단오제콘텐츠

---

17) 金邁淳, 《冽陽歲時記》, 1819年, "國人稱端午日 水瀨日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
18) 장정룡, 〈강릉단오제의 기원과 역사〉, 《강릉단오제백서》, 강릉문화원, 1999, 3쪽.
19) 李丙燾, 《韓國史大觀》, 普文閣, 1964, 52쪽.
20) 柳得恭, 《京都雜志》卷二, 歲時
21) 吉野裕子, 《十二支》, 人文書院, 1994, 160쪽.
22) 黃石, 《端午禮俗史》, 臺北 鼎文書局, 1979, 11쪽.

한국과 중국의 단오풍속을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자료는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와 종름의 《형초세시기》이다. 동국세시기의 저자 홍석모는 《형초세시기》의 체제를 따르고 내용을 인용하고, 양국 간의 유사점을 찾았다. 따라서 두 세시풍속지는 시공을 넘어 일정한 연계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동국세시기》에는 55개 항목에서 중국세시가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 기원을 중국으로 잡고 있으나 석전, 널뛰기, 수리치떡은 한국고유의 것이고, 세화(歲畵), 나무시집보내기〔嫁樹〕, 나무그림자점〔木影占〕 등은 양국에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그 독자적 발생과 동화 및 변이를 엿볼 수 있다.[23]

양나라 때 중국 양자강 중류지방인 형초(중국의 옛 강릉)지역 세시풍속지인 《형초세시기》에는 중국 단오풍속을 전하고 있는데 ① 5월을 악월이라 부름, 지붕 덮는 것을 금하는 금기풍속 ② 욕란절 명칭과 답초풍속, 사람모양의 쑥인형, 창포활용, ③ 경도풍속과 약초채집, ④ 오채색실의 벽병(僻病)풍속, ⑤ 종자먹기 등이다.[24]

《동국세시기》에 수록된 우리의 단오풍속은 ① 쑥호랑이하사 ② 천중부적만들기 ③ 제호탕만들기와 옥추단달기 ④ 창포탕 목욕과 창포비녀꽂기 ⑤ 그네뛰기와 씨름 ⑥ 수리치떡, 익모초, 희려말리기, 대추나무시집보내기 ⑦ 석전, 김유신맞이, 오금잠제, 선위대왕제 등이 있다.

강릉단오제의 콘텐츠화를 위한 DB구축안은 다음과 같다.

1) 배경-① 지리적환경 ② 역사적배경
2) 유래-① 단오제역사(단오제 일반)
② 관련설화(국사여성황신, 연화부인, 강문동여성황신, 창해역사, 소성황김시습, 범일국사, 산신 김유신장군)
3) 유적-학산리석천, 학바위, 굴산사지부도, 칠사당, 대관령국사성황당, 국사여성황당, 강문동여성황당, 강문동남성황당, 심곡리성황당, 구산리성황당, 학산리성황당, 정씨가터, 강문동진또배기, 굴산사지당간지주, 굴산사지
4) 문헌-역사자료, 구술자료, 조사연구보고서, 기록홍보자료, 학술논문, 저서, 학위논문 등
5) 기관단체-① 행사주관:강릉단오제위원회
② 보존·전승기관:강릉단오제보존회, 강릉농악보존회, 학산농요보존회, 강릉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관노가면극보존회
6) 전통연행-① 놀이:그네,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투호, 궁도, 창포머리감기, 돌싸움, 널두기, 떡메치기, 팔씨름, 제기차기, 단오부채그리기, 관노탈그리기, 쑥머리꽂기, 창포비녀만들기, 단오부적쓰기, 수리치떡치기, 수리치떡만들기, 가요제, 사천하평답교놀이, 장기, 난장, 체육행사, 경축행사
② 연희:강릉관노가면극
③ 음악:강릉농악, 강릉학산오독떼기, 사물놀이
7) 의식-① 유교식제의:대관령산신제, 대관령국사성황제, 구산성황제, 봉안제, 진또배기제, 영신제, 경방댁치제, 조전제, 송신제,
② 무속제의:부정굿, 대관령성황굿, 청좌굿, 하해동참굿, 조상굿, 세존굿, 산신굿, 성주굿, 칠성굿, 군웅장수굿, 심청굿, 천왕굿, 손님굿, 제면굿, 꽃노래굿, 뱃노래굿, 등노래굿, 환우굿, 축원굿, 강문동별신제풍어굿, 강동면 산맥이제
8) 물품·도구-① 복식:제례복, 무복, 연희복, 기타
② 무속용품:화지, 괫대, 용선, 팔각등, 살잽이꽃

---

23) 張正龍, 《韓·中 歲時風俗 및 歌謠硏究》, 集文堂, 1989, 37쪽.
24) 梁 宗懍, 《荊楚歲時記》, 欽定四庫全書, 史部十一, 臺灣中央硏究院傅斯年圖書館所藏本

③ 연행용품:탈, 담뱃대, 부채, 바다풀말치와 나리, 기타
④ 세시용품:단오부적, 단오부채, 단오첩, 단오장, 창포비녀, 단오빔
9) 음식제조-① 제의:신주, 제물,기타
② 세시:익모초, 수리치떡, 앵두화채, 앵두편, 각서, 어알탕, 제호탕, 창포주
10) 보존·전승-예능보유자, 보유자후보, 조교, 이수자, 일반전수생

강릉단오제에서는 매년 음력 4월 보름과 5월 5일 단오날 대관령산신,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에게 바치는 신주를 빚는 행사를 한다. 이때 만든 단오신주는 시민들로부터 받은 헌미로 수리치떡을 만들고 술을 빚는다.

따라서 강릉단오와 관련된 신성한 음식으로 술과 떡이 상품화될 것이다. 수리치떡과 함께 마시는 단오먹거리는 제호탕이 있다. 하선동력의 미풍양속인 단오부채, 쑥인주만들기, 익모초와 진득찰인 희렴을 단오날 정오에 뜯어다 생즙을 내서 민간상용약으로 만들고 이를 볕에 말려 배앓이의 약용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고려시대 〈동동〉에 언급된 즈믄해인 천년을 장수할 약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오날 쑥물이나 익모초의 민간 단방약을 먹던 관습으로 보인다.

수리치떡은 쑥잎이 작고 등이 흰 것을 골라 뜯어다가 짓이겨서 멥쌀가루 속에 넣고 녹색이 나도록 반죽을 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을 굳이 쑥떡이라 하지 않고 수리치떡이라 하는 것도 어원상 '수리'와 연관이 되는데 태양이 정수리에 오는 날이라는 뜻을 살린 말로 풀이된다. 수릿날 정오에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습속이 바로 이러한 뜻을 살려서 생긴 것이다.[25]

옛날에는 쑥과 수리치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엉거시과의 풀, 쑥으로 만드는 원래의 수리치잎을 넣어 찐 시루떡을 수리치떡이라고도 한다. 이 수리치도 향내와 약효가 쑥과 비슷하고 부시깃과 침구요법에 사용되고 이것이 쑥처럼 구설초라 옛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그러므로 단오의 세시풍속에서 계절식인 수리치떡, 제호탕, 옥추단, 단오부채, 창포차, 창포샴푸, 창포비누, 단오날 오시에 뜯은 감잎차 등을 단오상품을 만든다면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한약 등으로 다양해 질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시풍속인 단오날의 각종 전래풍속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단오라면 가장 먼저 먹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수리치와 쑥이다. 이를 강릉단오제의 주요 먹거리화해야 하겠다. 단군신화에도 나오는 쑥은 신비의 약이고 여름철 더위에 입맛을 잃은 사람에게 생즙 쑥물은 효험이 있다고 한다. 발표자는 요즘도 봄철에 뜯은 쑥으로 만든 찰떡을 간식으로 먹는다. 쑥잎의 등쪽 젖빛 솜털을 한데 모아 불을 점화하는 부시깃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침구요법과 쑥찜탕에도 이용된다. 쑥은 악귀와 액을 쫓는 방액부적의 붉은칠로 사용되는 주사의 인주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수리치와 쑥을 활용한 여름철의 먹거리, 건강식품, 다양한 목욕용품의 개발 및 쑥차와 수리치차, 단오인주, 이것을 찍은 단오천중부적, 쑥과 나물을 주 재료로 개발한 단오제삿밥도 안동의 사례를 원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단오날 먹는 종쯔[粽子]를 중심테마로 한 浙江省 嘉興市의 粽子文化節 축제를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다음 둘째는 제호탕을 여름철에 마시는 음용상품으로 개발한다. 많은 한약재가 들어가는 전통 청량음료로 제호탕은 제오탕이라고도 부른다.

만드는 법은 매실을 짚불에 그을려 말려서 만들어 설사 기침 소갈구충에 좋다는 오매육과

25) 최창렬, 《아름다운 민속어원》, 신아출판사, 1989, 108쪽

축사밀이라는 생강과의 소화제 약초로서의 사인과 향료로도 쓰이고 가슴앓이 배앓이 곽란에 좋다는 백단향, 사향노루 수놈이나 사향고양이 암수놈의 생식선 발정기 분비물로 높은 향기를 돋우는 사향을 함께 넣어 달여서 꿀과 함께 타서 마시되 瓷器 그릇을 이용하면 더위를 이기는 보신음료로 훌륭하다.

옥추단도 귀신과 병화를 물리친다는 상징적 처방으로 단오선의 선추로 비단 오색실에 매달고 다니다가 더위, 곽란과 같은 위급한 질환에 이것을 꺼내 빻아 갈아 마시면 구급약으로 신비약이 되었다. 지금 옥추단을 볼 수 없음이 아쉽다. 단오절을 한편으로 藥草節로도 보고 있는데[26] 한방약초를 활용한 상품들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강릉단오부채의 제작이 필요하다. 단오선은 합죽선이 제일로 좋은데 전주 감영의 선자청과 같이 합죽선을 만드는 제조청을 두어 정교한 장인의 솜씨를 발휘하면 명품이 될 것이다. 이 부채의 끝에는 금, 은, 비취, 호박, 거울, 나침판, 향집 등의 장식품을 扇貂로 달았다. 이것을 후에 扇錘라 불렀다. 선추에 수리치나 한약제를 넣는 방법도 좋겠다.

넷째, 단오빔 즉 端午粧의 개발이다. 여름철 모시는 최고의 입을 거리다. 수리라는 말자체가 단오때 입는 옷으로 본 견해도 있다.[27] 《동국세시기》에는 "남녀 어린이들이 창포탕을 만들어 세수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 옷을 입는다. 또 창포뿌리를 깎아 비녀를 만들되, 혹 壽福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는다. 그렇게 하여 재액을 물리치는데 이것을 端午粧이라 한다."고 언급하였다.

중국 운남성 난창 라후족자치주의 호로제에서 만난 라후족들은 자신들의 전통복색을 입고 전통악기를 들고 춤을 추며 거리를 활보하였다. 이 모습처럼 강릉단오제에 우리의 전통한복식으로 만든 모시옷 단오빔을 상품화한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이다. 예컨대 단오빔 패션쇼에 앙드레김과 같은 유명디자이너가 참여한다면 그것도 흥행성이 높을 것이다. 얼마전 강릉에서 열린 앙드레김패션쇼의 입장표가 매진된 사례도 있다.

다섯째, 강릉단오제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신 범일국사의 어머니인 학산처녀의 신화나 여성황신이 된 정씨처녀의 설화를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상품화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연출된 바 있는 이강복의 '어화 내 빛이어라'와 같은 무용극, 오페라, 창극, 연극 등으로 상시 연출이 가능하고 해외 공연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향적인 작품화 시도는 지난해에도 이루어졌으나 그 성공 가능성은 아직도 미지수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릉단오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단오문화관 상시공연작품이 없음도 문제다.

3. 맺음말

세시풍속으로 전승되는 단오날은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강릉단오제는 이러한 단오명절 풍속과 강릉의 전통문화가 합해진 축제로서 1967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13호로 지정된 이래, 2005년에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인류구전 및 세계문화유산'이 되었

---

26) 林美容, 〈臺灣五日節民俗及其意義的流變-兼籲訂端午節爲藥草節〉, 《臺灣文獻》第54卷, 第2期, 國史館臺灣文獻館, 2003, 33~48쪽

27) 윤호진 편역, 《천중절에 부르는 노래》, 2003, 민속원, 21쪽에서는 유만공의 세시풍요 단오 별주에 '端午衣曰戌衣'라 한 근거에서 단오날 모시옷을 입는 것만을 수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다. 국내 최고, 최대, 최상의 축제에서 세계인이 지켜보는 국제축제로 거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세시풍속으로서 단오명절과 강릉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새로운 단오문화 창조를 위한 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강릉단오제는 자생적인 수릿날 전통을 계승한 축제로서 세시풍속상과 관련된 먹거리 개발과 생활풍속의 재현, 창조적 테마의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강릉단오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대표축제다. 이를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아 강릉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전통문화 시범도시에서 전통의 세계화를 통한 창조도시로, 전통문화 중심도시화가 가능해졌다고 하겠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조성계획'이 공개되었다.

지난 5월 21일 강릉시에서는 이 계획의 용역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3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8개월간 세금으로 조성된 도비 6천5백과 시비 6천5백을 합쳐 1억3천 만원짜리 용역비를 주는 계획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계획은 ① 강릉단오제 보존 및 육성계획, ② 강릉단오문화창조도시 특성화 및 활성화계획, ③ 국제적인 문화관광벨트 조성계획 등으로 알려졌는데 강릉단오제의 세계적 무형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원형보존,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상품화, 전통문화도시의 발전촉진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하고 막중한 단오문화창조도시 계획에 단오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는 살펴보아야 한다. 누가 참여하고 아니 참여하고가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에 전문가가 있느냐, 아니면 지역전문가가 그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용역계획을 수행하는 곳에 그러한 업적을 갖춘 전문가가 있거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단오제를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배제된 채 수행하려는 이 계획의 성공 또한 미지수다.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가 제대로 만들려면 오랫동안 단오제를 연구하고 분석한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마간산격으로 서울에서 잠시 내려와 잠시 보거나, 이미 다른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해 놓은 자료나 시정자료를 적당히 짜깁기 해서 그림만 그럴 듯하게 그려 놓는다면, 전통의 재창조는 요원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설픈 창조도시' 또는 알맹이 없는 '창고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의 미래를 좌우할 단오창조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지역의 단오연구자들을 배제하는 愚를 행정당국은 범하고 말았다.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만들기를 시정구호로 내걸었지만 스스로 단오문화 중심도시만들기 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해바라기식 중앙 쳐다보기 모습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기존 도시에 이름만 그렇듯 하게 붙인 다고 혁신되고 창조되고 기업도시가 되지는 않는다. 주민 스스로 혁신하고 창조할 때 새롭고 바람직한 도시만들기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중앙의 자금을 끌어들이고 중앙의 인적자원을 잠시 수혈하여 꿈에 부푼 창조도시가 창조될 수 있다는 환상은 일찍 깨어나야 한다. 천년을 이어온 단오제의 주체를 생각한다면 창조의 주체와 창조의 주제를 선명하게 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창조의 주체가 되어야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억지스런 창조나 혁신은 고통일 뿐이다. 따라서 창조를 이끌고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하다. 이제 연암의 法古刱新과 선교장 淸新近古의 가르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

바라건대, 천년 강릉단오의 미래 천년을 설계해나가는 '단오문화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에는 참여행정과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중지가 모아져야 하며 더 나아가 축제전문가와 강릉단오제

연구자의 체계적 학술적 연구력을 결집해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단오와 문학콘텐츠

이 창 식(세명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세계문화유산에 무형걸작으로 지정된 강릉단오제(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 제13호)는 본격적인 세계화와 21세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틀을 지녀야 할 것이다. 강릉단오제에 대한 학술적 작업은 지속가능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오제에는 한국민속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다. 단오학(端午學)이 가능하도록 학문적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 기왕의 단오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28] 원형보존의 차원과 창조활용의 차원을 상생시켜 가야 한다. 단오학의 방향 설정 중 가장 시급한 부문이 단오 관련 문화콘텐츠 작업이다.

단오의 핵심 스토리와 이미지는 무엇인가.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끈질기게 유지시켜 왔을까. 국내용이냐 세계용이냐에 따라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방향이 다를 것이다. 가장 강릉적이면서 국제적 문화감각을 담아낼 수 있을까. 지금 여기의 단오제가 진정 예전의 진수를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강릉단오제의 원형성과 역사성에 대한 유산가치의 공유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자연히 강릉단오제의 문화콘텐츠 방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단오 관련 원형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학콘텐츠사업을 진단해 보는 데 있다.

단오제 기층에는 전통적 원형자산과 신화의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 영동지역의 마을신화, 다양한 무속신화, 심층적인 여성문화 등 구비전승물이 역사와 대응하면서 전승되고 있다.[29] 강릉 단오제의 전승론[30]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새롭게 해석하고 지금 여기의 현대적 가치체계로 읽어내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단오 디지털스토리는 IT기술이 창조하지만, 전통적인 단오유산의 신화성과 신비적 체험의 세계를 현실화한다.[31] 단오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부문에서 으뜸으로 살아야 할 것은 민속적 창조 가치를 찾아내 이를 오늘날 명품 단오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다. 문학콘텐츠 창작은 바로 핵심적 전략산업으로 또 다른 단오제의 지역 활성화와 변신을 의미한다.

Ⅱ. 지역문학의 경쟁력과 단오문화의 새로운 읽기

---

28) 이를 주도했던 강원도민속학회의 학술적 평가 작업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학술 평가를 계기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29) 이창식, <강릉단오제 민요의 제의성과 유희성>, 《강원민속학》 16집, 강원도민속학회, 2002, 119~140쪽.

30) 《강릉단오제 백서》,강릉문화원, 1999.

31) 이창식,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역락, 2006, 369~389쪽.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문화유산이 강릉단오제다. 단오제의 현대적 관심은 오래된 진품과 오늘 여전히 문화적 향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단오제의 가치는 무형문화재의 민속성과 아울러 공동체의례의 축제성이 주목된다. 강릉단오제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세계적 무형문화재의 가치로 인정한 까닭이 무엇인가. 단오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높이샀기 때문일 것이다.

단오는 농경문화의 세시풍속이다. 주기하다시피 단오 관련 제의성과 신화성에 대하여 이미 많은 성과를 낸 것[32]을 토대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화시대에 농경문화는 전통성을 간직하기 어렵다. 더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은 농업 관련 민속의 전통성을 더욱 쇠멸시켜 갈 것이다. 단오의 서사행위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단오 메시지를 낳는다. 과거처럼 단오의 농경적 환경 기반은 사라졌다. 기대할 수도 없다. 다만 디지털기술에 의해 복원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다.

단오의 농경성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에 노출되어 있다. 단오 음식만 하더라도 김치, 된장, 젓갈, 삼계탕, 비빔밥 등과 같이 세계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어찌 먹을 것만 그런가. 스타벅스, 진한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맛과 미국식 문화체험 마케팅이 접목되어 맛문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처럼 단오의 생생력(生生力) 이미지에다가 문화의 감동성으로 단오의 세계화를 꿈꾸어야 한다. 무엇보다 강릉단오제보존회의 체계적 전승은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33] 단오제 원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도 필요하지만, 가치 해석이 창조적이어야 한다.

육당 최남선의 신체시 속의 어린왕자 같은 '소년'이 100살을 훨씬 넘겼듯이, 올해는 1907년생 문인들이 집중 조명되고 있다. 생택쥐베리의 《어린왕자》를 읽으며 꿈의 고열에 시달렸던 지역문학 마니아들이 '지역'울타리에 묶여 몸부림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역문학의 고향성과 연고성 때문에 전통적 문학유산이 다시 대접받고 있다. 단오 관련 지역문학자원에 대한 총괄 조사도 시급하다. 교육 차원만이 아닌 지역을 살맛나게 할 공감 원천자원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34] 문화를 팔아먹는 일은 예술창조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름 있는 문인들이나 캐릭터가 지역의 인물로 선양되면서 박물관과 축제 덕에 관광산업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축제의 유희성(遊戱性)에다가 문학의 진정성(眞情性)을 보태 관심을 끌고 있다. 문인축제나 문인박물관은 문화적 깊이와 폭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유유한 향토산업으로 각광받아 재미를 쏠쏠이 보는 지자체가 여럿 있다. 강원도 지역마다 문학 속의 인물, 신화 속의 인물이 선양되고 문화산업의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도 단위로 선양인물의 기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90년대와 사뭇 달라진 점은 관 주도형 지역 연고 문인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형 위주로 바뀐 점이다. 더구나 문학테마관광 형태나 지역 정체성 살리기 차원에서 문인의 고향성을 살펴낸다는 점이다.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에는 기존 문인의 명패에다가 지역 특산품까지 연계하여 인물조차 브랜드 가치로 살려내고 있다. 강릉만 하더라도 허난설헌이 살아나는 예다.

아마 한류(韓流)라는 이름으로 촬영장 유형 신드롬이 바닥나면 지속가능성을 앞으로 문학의 힘, 문인의 힘이 한류의 책으로 등장하리라 믿는다. 정부의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실현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우리 문학의 원형자원을 활용한 한류화는 무궁무진하다. 과연 그런 유산이 잠재되어 있는가. 아직 세계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류의 문학적 글로

---

32) 김선풍, <한국단오민속 역사>, 《강원민속학》 제18집, 강원도민속학회, 2002, 15~28쪽.
33) 장정룡, <강릉지역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 과제>, 《강원민속학》 제18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41~42쪽.
34) 임재해, 《지역문화와 문화산업》, 지식산업사, 2001, 21~22쪽.

벌화가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미리 대비하는 지방정부가 성공한다. 홍길동 캐릭터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단오문화권 논의에 홍길동을 함께 논의했으면 장성지역과 비교가 되겠는가. 문학의 감동성은 끝이 없다. 문학의 유비쿼터스환경에서 변신은 무한대다.

문학의 디지로그시대 변신은 지역에서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문학의 변신은 끝이 없다. 시와 소설이 있는 숲을 가꾸는 곳이 있는가. 시를 지역 특산품과 함께 포장하는 곳이 있는가. 시 맛을 지역 명찬, 명주, 명의로 나타낸 곳이 있는가. 있을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각 지자체마다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드는데 총력을 쏠리고 있다. 그런데 모두들 잠시 시를 잊고 소설을 잊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21세기는 문학의 세기다. 어떤 나라든지 총량적 국민 행복을 결정짓는 고부가 가치는 문학과 관련된 유산에서 가장 많이 창출될 것이다. 고밀도 반도체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벌이도 중요하지만, 단오제와 관련된 스토리 한 대목, 굿판의 신명의 몸짓 하나, 단오부적 신명기의 붓 터치 하나, 민요선율 한 토막, 춤사위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재화를 유인할 것이다. 다만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그 회로가 길어서 언뜻 통계학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안 보일 뿐이다.

지역현실과 부합되는 단오 관련 문학산업의 육성전략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그 수립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주의 박경리 사례를 보면 문인도 지적 자산임을 알 수 있다. 소설 <토지>가 본래의 땅 원주로 되돌아오고 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본향을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토지문학공원 방문객은 2001년 5,000여명에서 2007년 4만여명으로 5년 동안 무려 8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7년 초부터 4개월 동안 1만 3천여명이 찾은 것을 감안하면 2007년 말에는 5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원주시 차원에서 청소년 우범지대처럼 방치됐던 토지문학공원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문인을 관리자로 뽑고 적극 지원한 문화행정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문학공원이 '소설 토지학교' '토지문학아카데미' '시낭송회와 작은 음악회' '시화전' '청소년백일장' 등의 문화행사를 연중 개최한 것도 한몫했다.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흥업면 매지리 토지문화 일대 21만 593㎡를 문화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을 이용한 '관광 산실'을 만드는 작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원주시는 토지문화관을 찾는 방문객과 문인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화지구 지정을 결정하였다. 2007년 추경예산에 토지사료관 건립을 위한 토지 관련자료 구입비 1억원을 확보키로 해 통영 하동 진주 거제 등 타 지역보다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지문학공원의 테마화는 방문객들은 박경리가 <토지>를 집필하고 텃밭을 가꾼 곳을 둘러보는 그 자체로 감동을 주고 소설 토지에 드러난 생명사상과 원주의 이미지가 잘 맞아떨어져 세계적 명소로 키우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점이다. 이런 점에서 신봉승 등 지역출신 문인의 명품화 운동이 필요하다.

문학을 통한 문화산업화는 지금 전쟁 중이다. 문학의 에듀테인먼트콘텐츠화, 문학의 영상화, 문학의 오락화, 문학의 공연화 등 그 다양화는 한계가 없다. 모바일콘텐츠, 캐릭터, 사이버문학박물관, 인터넷문학콘텐츠, 문학애니매이션, 게임문학 등 문학산업의 분야별 살리기, 창작하기, 연계하기는 시작이다. 특히 지역문학의 향토퓨전인자를 통한 이러한 문학산업은 그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문학박물관으로 성공한 곳이 평창 이효석문학관이다. 그곳에 가면 이효석의 자연과 성, 본능과 토속성을 만날 수 있다. 그도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서울에서는 난리법석의 잔치가 있는데 정작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밀렸는지 다소 한풀 꺾여 있다. 이효석의 무덤만큼 연고성이 문제가 된다. 이효석 이야기의 문학콘텐츠가 절실하다. 춘천 김유정문학촌도 전상국이라는 걸출한 후배 소설가 덕에 김유정 마음속의 캐릭터들이 호강하고 있다. 21세기 점순이, 노름수탉 싸움 등이 그것이다. 단오 관련

문학작품 인물캐릭터 활용이 절실하다.

강원도 지역 인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강원의 얼'선양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강원도는 이 지역 문화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발굴하여 보전 전승하고 향토문화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인물에만 국한한 나머지 무형 관련 캐릭터를 동시에 살리지 못했다. 도는 지속적으로 애국 충적 개혁 목민관 여성 문화예술 등 6개 분야 18명에 대해 17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중 12개 사업이 완료되었다. 대상 인물은 구한말 항일의병장 의암 유인석(춘천시)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한서 남궁억(홍천군), 만해 한용운(인제군), 운곡 원천석(원주시), 동안거사 이승휴와 미수 허목(삼척시), 홍길동전 저자 허균과 여류시인 허난설헌(강릉시) 등이다.

또 단편문학의 선구자 김유정(춘천시),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평창군), 화가 박수근(양구군), 방랑시인 난고 김병연과 단종(영월군), 매월당 김시습과 신사임당, 허난설헌(강릉시) 등에 대해선 기념관이나 문학관 미술관 건립과 자료 정리가 완료되었다. 현재 낙천 남구만(동해시), 여성 독립운동가 윤희순(춘천시), 삼척 부사 허목(삼척시), 곡운 김수증과 시조 시인 이태극(화천군), 파초의 시인 김동명(강릉시), 박인환(인제군)시인에 대한 사업은 추진 중이다. 모두 새롭게 등장하는 문학연고산업이다. 이외수(화천군)의 비림(碑林)프로젝트도 이런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정신사나 문화적으로 큰족적을 남긴 인물들로 기념관이나 문학관, 자료관 생가 터 등이 최근 인기 문화 관광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또 이들을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늘어나면서 문화제나 학술 연구 그리고 기념행사 등이 잇따라 열려 지역브랜드가 최고지역을 알리는 홍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역문학자원을 이용하여 재미를 짭짤하게 보는 지역이 많다. 지역민의 자신감을 주는 얼굴이 되었다. 문화관광부도 문학을 포함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가꾸기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필자가 참가하고 있는 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된 충주 목계마을이 있다. 목계는 남한강 핵심 물류 내륙포구였다. 신경림 <목계장터> 시로도 유명하다. 실제로 신경림 생가가 지척에 있다. 앞으로 추진될 과업 중 목계마을에 신경림 문학적 본향성(本鄕性)을 살려볼 계획이다. 시가 살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 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초의 마을, 그런 그림이다.

강릉지역 학산마을도 원주지역 매지와 함께 문화역사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단오제 원형마을 이미지와 오독떼기 고향성이 계기가 된 듯하다. 강릉단오제 활성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 강릉신화의 학산은 대관령 전통을 간직한 마을이다. 신화가 살아 숨쉬는 마을이다. 단오신들과 관련된 마을이다. 학산 마을의 전통은 신화와 공존하는 역사적 이미지가 강하다. 마을 사람들의 심성을 비춰주는 신화의 거울이 있다. 고창 질마재마을은 미당 서정주 때문에 국화마을이 되었다. 서정주와 국화가 만나 고창을 새로운 이미지로 끌어올렸듯이 신경림의 남한강, 그 낮은 목소리를 문학감동화하자는 것이다. 문학도 돈이 되는데 천박한 속물의 현장으로 연계되서는 곤란하다. 문학적 상상력과 감상이 깊게 묻어나는 마을이 필요하다. 조경사업, 건축사업의 마을활성화사업에 신경림 집은 남한강사적 이미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인문학 하는 필자를 포함하여 글꾼들은 관심이 쏠릴지 모르지만, 대부분 아직은 하드웨어에 집착할 것이다. 그래서 설득해야 한다.

영월 김삿갓문학관을 예전의 풍토에서는 상상이나 했는가. 단오제 관련 신화가 강릉에서는 아직 방치되어 있다. 어찌 박경리 연고가 원주가 될 수 있는가. 그래도 선점하고 앞서 아이디어를 내어 추진한 곳이 지적 재산권을 갖는다. 지적 재산권 문제도 여기서부터 논해야 한다. 문학을 중심에 놓고 오는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 자연도 더불어 즐기고 관련 미술이나

음악, 테마파크, 축제도 즐기면 더욱 좋지 않을까. 지역예술, 지역음식, 지역차, 지역쇼핑몰이 있으면 더욱 좋다. 따스한 문학, 지역 색깔과 똥내가 나는 문학 이를 살려내기 위해 문학콘텐츠 사업이 절실하다. 지방정부의 단체장들의 문화감각이 바뀌어야 한다. 그들만의 문학마인드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강릉 단오문학특구로 이러한 흐름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문학의 지금 여기 혁신은 문학콘텐츠를 염두에 둔 창작과 사업확산이다. 특히 사이버세대, 디지로그시대에 더욱 그렇다. 유비쿼터스환경에 문학의 창조성을 지역문학콘텐츠의 다양성과 통한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학의 내재적 가치 탐색은 시작이다.[35] 이를 문학산업화로 연계하는 걸음마 단계에 시작에 불과하다. 지역문인들의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지역대표 문학자원의 활용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문학인물 또는 문학작품 속의 캐릭터인물을 통해 직역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특성화된 문학콘텐츠 향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독특한 문학적 성감대를 찾아야 한다. 감동의 핵심을 찾아야 한다. 강릉매화타령이나 단오탈놀이, 오독떼기 등의 감동력을 새롭게 불러내야 한다.

문학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문학적 향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촉진시킬 지역 예술인을 길러내고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테마관광을 고려한 대중화, 작품의 매력화, 연계 산업의 촉매화 등을 살려 공을 쏟아야 할 것이다. 지역대표 문학상품이 되기 위해 관련 추진위에서 사전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 문학의 디지털화하는 문학의 원형자원을 IT기술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다. 제3의 신화론을 제기하듯이 문학 고유의 감동력을 영상디지털 기술로 창조감동을 확장하는 뜻을 내포한다.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되 21세기형 감성문학산업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에 앞서가는 지역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지속가능성으로 발전시켜 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예술인들의 각성과 혁신 마인드가 절실한 실정이다. 문학콘텐츠의 길은 진행형이다. 누구나 고정된 체계를 앞질러 말할 수 없다. 단오의 옛스러움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

강릉지역 원형자산 단오 이야기는 지역문화사를 진술하고 있다.[36] 문헌이든 구전이든 단오 이야기에는 강릉 사람들의 삶과 세계관이 내재되어 있다. 역사적 팩트와 문학적 픽션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팩션(faction)의 결합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3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주제 영상물 <천마의 꿈>처럼 신화와 역사가 아이디어가 결합되어야 한다.[37]디지털콘텐츠의 길은 단오 관련 팩션의 원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산업을 창출하는 데 있다. 강릉단오제 전문인력도 이 점을 고려하여 보충해야 한다. 강릉을 찾는 이들에게 강릉단오제의 문화적 심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강릉단오문화 창조도시 조성계획' 연구 용역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앙 중심의 연구 기관이 기대만큼 수행하여 보여줄 것인가는 의문이다.

Ⅲ. 강릉단오제의 문화자원과 문학콘텐츠 활용

1. 강릉단오제의 팩션(faction)과 문학콘텐츠화

강릉단오제는 단오문화권에서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공동체제의다. 강릉단오제는 시원적으

35) <왜 신화와 판타지인가?>특집, 《문학과 경계》, 2002년 봄호, 39~41쪽.
36) 《강릉단오제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관리국, 1994.
37) 이인화 외,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2006, 50~51쪽.

로 고대 제천의식(祭天儀式)에 닮아 있다. 고대 농경사회 때 지역민들이 봄철에 씨를 뿌리고 나서 농작물이 한창 자랄 때 풍요의 결실을 기원하고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무천이나 영고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농경사회의 제천의식에서 비롯된 단오제에서 모시던 주신은 분명하지 않다. 하늘신, 산신, 고을신에서 실존인물인 범일국사(梵日國師), 정씨가(鄭氏家) 여성, 김유신(金庾信) 등으로 바뀌었다.[38] 이들은 지역인들에 의해 신격화되어 대관령국사성황신, 대관령국사여성황신, 대관령산신(大關嶺山神)으로 되었다.

범일은 신라시대 강릉지역의 지배세력이었던 강릉 김씨인데 술원(述元)의 손이고, 어머니 문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술원은 명주도독겸평찰(溟州都督兼平察)을 역임한 토호였고, 외가는 누대에 걸쳐 강릉지역에 세거한 호족이다. 범일은 신라 현덕왕 3년(810)에 태어나서 진성여왕 3년(889)에 열반한 승려라고 알려져 있다. 그는 15세 때 승려가 되어 흥덕왕 4년(829)에 경주에 가서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다시 당나라에 가서 제안대사(濟安大師)에게 사사하며 6년 동안 수도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에 고향인 강릉 굴산사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으로부터 국사가 되어주길 권유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굴산사에 머물면서 선문에 매진한 인물이다.

대관령국사 여성황으로 신격화된 정씨가 여성은 초계 정씨의 시조인 정배걸(鄭倍傑)의 21대 손인 숙종 때 완주(完柱)와 어머니 안동 권씨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이고, 정현덕(鄭顯德)의 5대조 고모로 알려져 있다. 정현덕은 대원군 때 동래부사를 지내고 정씨가 여인이 호랑이에게 잡혀갔다고 하는 집의 주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 여성은 황수징(黃壽徵)과 혼례를 올리고 서도 시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가에는 알묘를 하지 못한 채 친정 경방(經方)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5월 단오날 집에서 국사성황 행차를 구경하다가 호랑이에게 엎혀갔다. 가족들이 온 사방 수소문한 끝에 대관령국사성황당에 찾아 갔는데 이미 시신이 되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시신을 수습하여 홍제동에 있는 친정 어머니인 안동 권씨 산소 앞에 안장하였다. 현재도 그녀의 묘는 강릉교도소 서쪽에 산 맴소 능선에 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사후에 대관령국사성황이 된 범일국사와 혼배를 하고, 대관령국사 여성황신으로 신격화된 인물이다.

신라 굴산사 범일국사와 조선조 때 여인인 정씨가 여인이 시공을 초월하여 혼배한 것으로 보면 대관령국사여성황과 대관령국사여성황은 후대에 와서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강릉지역의 성황제는 조선 초기 이래 치제(致祭)되었지만 그 때부터 범일을 주신으로 설정하는 국사성황제는 아니었고, 영조 38년(1762)에 와서 국사성황을 범일국사로 모시고 국사성황제를 지냈다. 대관령국사여성황제는 그 후에 지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인격신으로 삼은 것은 신의 존재를 너무 잘 아는 후대 지역세거정치 집단에 의한 정치권력의 소산일 뿐 본래 고을 신은 위패 없는 목신(木神)이 아니면 암석의 정령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관령산신으로 신격화된 김유신(595~673))은 신라의 장수인데 그는 젊었을 때 명주에 유학하여 대관령산신에게서 검술을 배웠다는 이야기가 전하는 인물이다. 그는 강릉 남쪽에 있는 선지사(禪智寺)에서 명검을 주조하고 이것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했으며 사후에는 대관령의 산신이 되었다. 영웅 면모 갖추기는 강릉을 배경으로 한 인연이 그를 단오신으로 자리하게 만든 것이다. 영웅 리더쉽을 길러준 강릉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곳인 셈이다.

단오제 시원과 전개에 대한 이해는 시공의 경계가 모호하다. 뒤집어 말하면 이야기판의 환상성이 도사려 있다. 신화학적 접근도 제한적이다. 더구나 역사학적 접근도 매우 좁은 구

38) 김기설, <강릉단오제>,《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p.803.

석에 매어 있다. 단오 신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역사와 허구에 걸쳐 있다. 강릉 사람들의 문학적 체화감을 여전히 주목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역사성은 구체적이지 못하나 문헌에는 남효온의《추강집》,《고려사》,《강릉지》, 허균의《성소부복고》,《임영지》등이 있다. 일제강점기 오청이 쓴《조선의 연중행사》, 추엽융(秋葉隆)이 쓴《조선민속지》와 <강릉단오제>(1930), 조선총독부조사《부락제》(자료 44집), 조사자료집《강릉군》등이 있어 지역적 역사성을 살릴 수 있다. 구전자료는 설화성을 지니지만 지역민들의 진실성이 담지되어 있다.

범일과 김유신의 역사적 사실성과 이를 받아들인 지역민의 상상력을 콘텐츠로 살려내기 위해 이야기의 가치성을 탐색해야 한다.[39] 해석의 멀티디지털콘텐츠 감각이 필요하고 이를 영상으로 재현하는 힘이 요구된다. 범일과 김유신의 매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민들의 입에 올려진 믿음, 이 점을 깊게 읽어내기가 소중하다. 신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지혜를 파악해야 한다.

강릉의 진산격인 대관령은 신들의 고향이다. 단오제에 모시는 신격들이 산다. 범일국사와 김유신, 정씨처녀, 연화부인 등이 그것이다. 그들은 단오 때 단오굿당에서 놀고 싶어한다. 단오굿을 보려온 사람들과 만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서 이야기판에서 논다. 논다는 것은 문학을 즐긴다는 뜻이다. 문학을 들으며 신명에 빠지고 환상성의 여행을 경험한다. 이야기의 현장적 힘이 여기에 있다.

○ 최씨네 집에 정씨 여인이 있는데 꿈에 대관령 서낭신이 청혼한다.
○ 대관령 호랑이가 정씨 여인을 서낭신한테 데리고 간다.(4.15)
○ 화공을 시켜 화상을 그리고자 몸이 떨어진 후 여서낭신이 된다.

창귀가 된 이야기다. 비극적이다. 충격적 사고 후 공동체신앙의 주인공이 되고 남성 서낭신과 혼인한다. 호랑이 서낭신의 사자로 되어 있지만, 이 신화에서는 대관령 산신의 사자다. 대부분 서낭신의 사자는 말이다. 조선조 읍치제를 통해 대관령 산신을 '성황신' 또 '국사신' 등으로 다르게 호칭한 데서 달라진 것이다. 대관령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단오 이야기 심층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 고을신화에는 중심 신격의 당위성이 있다.
○ 정치이념과 연계된 신격인물이 지역민 의식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다.
○ 공동체 의례를 통해 대상인물이 반복적으로 숭배한다.

이야기의 정체성은 지역사의 이면을 말해주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궁극적인 진실 말하기가 내재되어 있다. 오늘날 관심이 가는 쟁점은 이야기의 진정성과 함께 구전의 힘이다. 왜 오랜 세월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려고 했는가다. 스토리텔링창작은 이러한 이야기의 공감대를 공략해야 한다. 이러한 서사의 원형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 범일, 김유신을 무대 위로 올리고 강릉단오탈놀이를 새롭게 영상화해야 한다.

2. 강릉단오제의 난장과 문화이미지

단오의 소통방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강원도 굿판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는

39) 이창식, <스토리텔링의 이해>,《문학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역락, 2005, 115~119쪽.

말이 있다. 굿은 볼거리인 동시에 신성한 축제다. 떡은 기쁨이나 재미의 맛이다. 신성한 것과 신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예전에는 그 신비의 멋과 구수한 맛에 취해 강릉단오장으로 찾아 왔다. 강릉단오장을 가면 고대 산신제와 서낭제의 마당에 있는 듯 21세기 현대 속에 원초적 놀이판에 있는 듯 재미있다. 굿판의 전통적 그 맛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고 강릉은 전통민속문화도시의 일번지가 되었다.[40]

강릉단오굿판을 통해 나눔과 베품의 맛과 멋을 깨달았다. 이 땅의 어머니와 할머니 얼굴들을 만나는 자체가 정겹다고 한다. 단오가 가까워지면 인근 지역 사람들은 지난 날처럼 단오난장에 이끌린다고 한다. 신주를 빚듯 단오장 가는 마음을 다스린다. 단오장에는 온갖 놀이문화가 살아 숨쉰다.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다. 단오굿은 동해안 일대 마을마다 고을마다 지내왔다. 본래 개인굿과 마을굿이 결합되어 축제화된 일면이 보인다. 그 뿌리는 고대 제의와 산멕이에 있다. 그 뿌리의 드러남에는 서낭굿이 있다. 이제 강릉단오제는 고을굿이 되었다. 고을굿답게 닫힌 제의, 열린 농악, 진한 농요, 신명의 탈놀이, '센' 강릉 단오민속놀이 등이 어울려 있다. 신들의 잔치인 동시에 고을 사람들의 모꼬지인 셈이다. 단오 난장에는 흥청거림과 신명이 있다.

옛사람들은 단오 때가 되면 일손을 잠시 놓고 굿판에 가서 신(神)과 놀았다. 난장에서 한바탕 퍼질러 놀았다. 실컷 놀면 힘이 생기고 건강하여 여유가 생긴다고 하였다. 그래서인지 단오장에는 더불어 노는 신명과 즐거움의 묘미가 있다. 단오장 가는 길은 저 아득한 무천(舞天)으로 통하고 마을 속의 원시 욕망과 통한다. 길은 어디에도 있기에 세계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안내하고 있지 않은가. 굿판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의 주인공은 이 땅 뭇사람들이 만들어낸 스타캐릭터다. 당금애기, 바리데기, 심청만 하더라도 생산신, 생명신, 재생신이 아닌가. 더구나 이 땅 여인들이 죽어서 담고 싶어하던 스타캐릭터다. 굿판에서 그들은 이 땅의 여성들의 또 다른 거울속의 자아인 동시에 대리만족의 인물이었다. 굿판에서 자신의 분신격인 이들을 통해 진정한 생명, 참된 자아, 희망의 이데아를 깨달았다. 굿이나 보면서 이런 이치를 깨닫다니 매우 오묘한 판이라 볼 수 있다.

놀이판에서 그네 타는 바리데기 닮은 처녀, 영산홍 노랫가락에도 있다. 이 처녀의 순수성은 국사서낭신과 통한다.[41] 처녀의 순수 오줌발은 벼를 여물게 하고 보리이삭을 알차게 하는 힘이다. 정씨처녀 오줌발, 논밭을 녹인다. 씨름하는 시시딱딱이와 장자마리 닮은 총각, 단오탈놀이-강릉관노가면극이라고 부르는 것을 고쳐 이렇게 불러야 한다- 캐릭터다. 창해역사를 닮았다. 김유신의 슬기를 닮았다. 그래서 판소리 강릉매화타령 이야기를 유언극(有言劇) 단오탈놀이로 만들어야 한다. 살려내는 대사에는 강릉사투리와 지역 정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난장판에는 돈이 놀고 토산품이 얼굴을 들고 시끌벅적한 말이 튀는 현장감이 있다. 엿장수의 육담이 녹고 서커스가 벌어지고 노름판에서 질펀함이 있어 열린 놀이문화의 성향을 지닌다. 강릉탈놀이 무언의 몸짓이 진짜로 놀고 삿대질 오고 가듯 소통의 열림이 있다. 욕설이 오고 가고 싸움판은 춤판이 되고 싸움이 곧 겨루기가 되고 개판의 극치를 이루는 면모가 있다. 헛것을 버리고 참 탈을 쓴 채 웃음을 던지면서 웃음을 챙겨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부적처럼 나쁜 것을 털어버리는 신주단지 모시듯 아끼던 것도 흥정의 대상이다. 수리취떡을 먹고 국수도 말아먹고 술도 마셔 단오장은 용광로가 된다. 난장의 열기는 단오장의 밑천이

---

40) 임재해, <문화자산으로서 민속문화 유산의 경제적 가치 재인식>, 《비교민속학》 제27집, 비교민속학회, 2004, 65쪽.

41) 이창식, 앞의 논문, 139쪽.

다. 허균의 홍길동도 그곳에 있다. 《성소부부고》의 철학이 있다. 보부상들이 <조웅전>과 <심청전>을 팔고 있다. 남대천 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고려사 열전의 인물의 왕순식도 있다. 난장아리랑을 그 곳에서 들을 수 있고 예전에는 종종 1930년 단오사진도 살 수 있다. 벼룩시장이 아니라 단오보리밭시장이다. 보리밭에는 보리 없고 단오 베이비가 있다. 최고조의 힘이 난장에서 수릿날의 절정미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굿판과 난장의 골목에 심청도 연꽃으로 환생하여 황후가 된다는 환상이 그 곳에 있다. 범일국사를 만든 생생력도 그 곳에 있다. 단오 문학콘텐츠는 이러한 난장의 생명력을 달아내야 한다.

이 난장에 대한 묵시록 같은 깨달음 속에서 놓친 화두를 건져내야 한다. 단오난장에는 제천의식의 원형이 살아숨쉰다. 시시딱딱이의 몸짓을 통해 홍길동의 해방구를 보았다. 이게 미치고 싶은 사람들만 강릉단오굿판으로 와야 한 이유다. 엿장수 육담타령도 단오굿판의 매력이다. 강릉단오제와 같은 삼척오금제를 찾았다. 강릉단오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삼척오금제가 보였다. 백두대간을 따라 동해안을 낀 산간마을에는 단오굿이 마을의 대표 축제였다. 그 확실한 모습이 삼척오금제다. 삼척오금제는 죽었고 강릉단오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살았다. 문화는 주권이 있는가. 삼척오금제의 소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강릉단오제의 미래를 위해 삼척오금제와 산멕이도 복원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품격과 생명력은 강원도적 힘을 넘어 세계적인 에너지로 나타난다. 문화의 다양성 덕일 것이다. 단오 굿판을 원래대로 옮겨놓되 문화적 확산을 위해 명품 강릉문화도시 설계 속에서 새 단오장을 키워야 한다.

이제 세계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에 관한 총체적인 원형 재검토와 문화콘텐츠의 문제를 짚을 때가 되었다. 어휘 하나에도 강릉 말투, 강원도 말씨를 살리되 영문 표기는 국제적 규격을 보여야 한다. '강릉단오제학'도 정립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사이버 구축이 절실하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콘텐츠예술미를 보여야 한다. 단오콘텐츠의 길찾기, 전문인재, 세계화 마케팅, 인문학적 접목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강릉단오제의 힘은 난장에 있다. 난장의 보존과 활성화, 다시 짚어야 한다. 이것을 방치해서는 후회막급할 것이다. 경고한다. 난장의 원형성도 간직해야 할 유산이다.

세계관과 관계없이 단오문화유산은 문화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서구 시각도 안 되고 특정 종교 시각도 안 된다. 단오 한류를 타고 우리 문화의 저력을, 앞서 살핀 단오난장의 힘으로 단오문화인자를 새롭게 찾아 21세기 단오문화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이 절실하다. 강릉단오제가 인류구전과 무형문화유산 걸작으로 천년만년 가기 위해 지역성과 세계성을 살려야 한다.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등과 상생하면서도 달리 걸어야 한다. 토종 냄새나는 강릉단오제 보존이 시급하다. 강원도 맛이 진덕하게 묻어나는 단오토산물을 복원과 재현을 선보여야 한다. 보리밭이 사라진 강릉 단오장 주변, 걸판한 사투리가 죽어나는 단오난장, 예전 단오 촌음식이 안 보이는 오늘날 단오마당이 문제다. 강릉단오제의 마음씨, 솜씨, 맵씨, 말씨 등을 통해 강릉 단오다운 것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3. 강릉단오제 문학콘텐츠 개발과 활용 문제

멀티미디어의 수신 지향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42]문화콘텐츠는 원형자원을 되살리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덩어리처럼 전략적인 시스템만 갖추면 굴릴수록 엄청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강릉단오제를 알릴 뿐만 아니라 체험의 진수를 누리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시나리오와 드라마, 동화 등의 스토리텔링 분야를 비롯하여 플래쉬 애니매이션, 디지털 영상

42) 이어령, 《디지로그》, 생각의 나무, 2006, 176~177쪽.

그리고 극화, 웹툴, 학습만화, 캐릭터 등 다양한 문화산업이 가능하다. 이러한 창작에는 다음과 같은 단오의 미래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 공동체 놀이의 미학성 살려내기
○ 대한민국 신명의 난장성 드러내기
○ 농경문화 상상력과 건강성 빛내기

문학콘텐츠의 변주는 이처럼 문화상품을 고려하되 단오 원형이야기의 모티브로 삼고 현장의 문맥과 지역민의 사고를 통해 상상력을 이끌어내어 새로운 단오디지털예술품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단오 난장의 에로티시즘과 농경 생생력의 충만성을 아주 부드럽고 낭만적인 미디어에 접목해야 한다. 단순히 공모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연구하고 기획하는 추진위가 결성되어야 한다. 단오제의 문화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드러내야 한다.[43] 단오 문학콘텐츠의 호모루덴스적 싱크탱크가 있어야 한다.

· 단오탈놀이, 강릉매화타령, 오독떼기, 영산홍, 단오인물설화 등 스토리텔링 창작추진
· 단오 관련 문화콘텐츠 연구위원회(가칭) 구성
· 강릉시 단오문화 전승특구 지정
· 강릉학(江陵學)[44] 또는 단오학의 입장에서 단오문화의 정체성 정립
· 단오 관련 문화상품 발굴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책과 조례 만들기
· 강릉지역 대학내 강릉단오제 관련 전공(대학원)과정의 개설과 전문연구소 개설

강릉단오제의 문화산업은 시작이다. 원형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방면의 활성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주도할 전문가 그룹이 없다. 문학콘텐츠 창작은 실험과 상품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축적해가는 과정에 강릉단오제 관련 문화상품 만들기는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다. 원형가치 발굴, 창작, 상품개발,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오 설화에 관련된 이야기 요소에 디지털적 상상력을 부여하여 다양한 자원으로 만들어낸다면, 콘텐츠 제작의 활용에 부합한다. 참고로 기존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사업 내용을 소개한다.[45]

· 동아시테크: 한국 신화 원형의 개발
· 아툰즈: 전통놀이 원형의 디지털콘텐츠 제작
· 코리아루트: 한국의 소리은행 개발- 전통문화소재, 한국의 소리
· 하우스세이버: 한국 전통건축, 그 안에 있는 장소들의 특성에 관한 콘텐츠 개발
· 서울시스템: 신화의 섬, 디지털제주 21 : 제주도신화전설을 소재로 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 한국예술정보: 애니메이션 요소별 배경을 위한 전통건축물 구성요소 라이브러리 개발
· 드림한스: 고려시대 전통복식 문화원형 디자인개발 및 3D 제작을 통한 디지털 복원
· 이화여대섬유패션디자인센터: 문화원형관련 복식디지털콘텐츠 개발

---

43) 정광렬, <강릉단오제의 인적·문화적 인프라 구축 개설과 전망>, 《포럼중계》 참고.
44) 몇 년 전에 결성한 강릉학회도 단오유산을 중심으로 연구 영역의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45) 임재해, 앞의 논문, 67~68쪽.

Ⅳ. 맺음말 : 단오학의 정립과 문학콘텐츠의 미학

단오학의 시각으로 관산학 협력 연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중에 단오문화콘텐츠가 자리해야 한다. 단오문화사이버대전 등을 염두에 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강릉지역 대학에 단오관련 전문학과를 대학원과정에 개설해야 할 것이다. 늦게나마 강릉단오제위원회에서 제1회 강릉단오제 문화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잘한 일이다. 보존에 힘썼고 이제 콘텐츠 개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정작 중요한 것은 단오문화품목들의 창조, 생산, 보급, 유통, 향유양식의 다양성에 있다.

단오 이야기의 매력은 원초성과 고향성이다. 이야기판의 입담과 상상력을 살려야 한다. 영상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신화적 환상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단오 이야기의 신화성을 콘텐츠 미학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앞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을 통해 강원도와 강릉시가 이 방면에 혁신적 마인드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단오제의 지속적 매력 창출은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바탕 위에 감동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야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의 위력 앞에 복원과 보존의 오래된 미래와 새로 오는 세대를 위한 현묘(玄妙)한 감성창조가 조화를 이룰 경우, 단오세시 풍속성이 사라진 시대에 단오제의 현대성이 존재할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단오 관련 문학콘텐츠의 향부론(鄕富論)에 대한 서설에 불과하다. 단오학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말한 셈이다. 선언적인 강조는 이런 점에서 필자의 고민거리라고 말하고 싶다. 끝으로 단오제의 터전인 대관령의 문화성을 풀어서 노래한 이성교(李姓敎) 시 <대관령을 넘으며>를 읽는다.

작년 봄 우리 님 이산을 넘을 제/ 아흔 아홉 굽이마다 눈물이 서렸나니,
얼켰던 머리카락 눈빛에 새로워라.

소복 하고 오실 님의 머나먼 구름밭./ 정왕산에 비만 내려 산천만 푸르렀다.
해발 8백미터. 돌아가면 천리, 올라가면 만리/ 봄마다 멀리 산앵두 핀다.
내려다보면 어찌도 푸른 짐승이/ 높디높은 하늘처럼 둥둥 떠서 놀까.

갈메골의 喪家는 비에 그치지 않고/ 바위 바위마다 피가 맺혀 통곡을 한다.
솔바람에 젊은 가슴도 애타거니,/ 굽이굽이 몇천 리를 산새는 울고 갔나.

이 산을 다스리느라고/ 바다는 얼마나 발버둥쳤을까.
어떤 입술은 피에 젖고/ 어떤 입술은 불에 그을려
아흔 아홉 굽이마다 새로운 철이 간다.

아아 빨이 달아올라라./ 능경산의 보드라운 싸리밭.
횡계벌의 물은 맑아, 우리 님 오실 날이나/ 눈이나 쏟아지지.

에헤야 데이야, 바다로 흐르는 秋木./ 봄은 오고, 여름은 가고
가을은 오고, 겨울은 가고……./ 풋풋한 감자 내음만
초막골을 풍긴다./ 고루쇠, 들미, 박달, 가래, 물버들, 참나무…….
이렇게 한 조상이 살다 가면 얼마나 세월이 바뀔까.

未堂님 道袍 자락도/ 나의 그늘이 되어
가슴만 가슴만 불타 오른다.

종은 울어라./ 이 산이 다하는 날까지 종이여 울어라.
짐텃골의 피뿌린 자국만 높고/ 祈雨祭의 뿌린 밥도 비에 젖는다.
樂泉 三浦岩에 흐르는 물. 그 물을 먹고/ 우리는 자랐거니, 벚꽃, 매자꽃, 함박꽃, 진달래꽃
동백꽃 - 아흔 아홉 굽이마다 핀다.

仙子嶺을 따라서 국수당에 오르면/ 피에 젖은 옷조각, 마르지 않는 눈물.
귀신나무 소나무만 애처로이 자랐거니,/ 목이 말라도 목이 말라도 이 산을 부르면
눈 앞엔 시원히 海圖가 열린다.

- 이성교의 <大關嶺을 넘으며> 전문

단오와 역사 인물

이재범(경기대 사학과 교수)

1. 서론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이다. 중국· 일본 등의 지역에서도 큰 명절이라고 한다. 이 날은 중오·오월절로도 불리운다.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한다. 그 명칭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이날 먹는 숙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와 비슷하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수리취로 떡을 만든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는 설도 있다. 수리는 高·上·神 등을 의미하는 고어로 5월 5일은 신의날, 즉 최고의 날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솟다'라는 의미의 몽고어 소로(Soro)에서 유래 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

단오(端午)는 초오(初午)이다. 즉, 5월의 첫 번째 말[午]의 날이다. 그리고 5월은 한해의 오월(午月)이므로 양수(陽數), 즉 기수(寄數)의 달과 날이 같은 시기라고 하여 5월 5일을 명절로 하였다. 이러한 예는 3월 3일(삼짓날), 7월 7일(칠석)의 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수릿날은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의 하나라고 하며, 신라시대부터 유래하였다고 한다.[46]

본고에서는 이러하나 유서 깊은 단오와 관련된 인물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가운데서도 실존했던 인물들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단오와 관련이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단오와 직접적인인 관련이 있다고 할 단오에 출생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고, 그의 행적을 한국문화원형화 할 수 있는 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단오와 관련된 역사인물

46) 동국세시기 등 세시풍속기의 기록 참조.

단오는 대명절이었던 만큼 많은 인물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실존 인물과의 관계가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단오에 태어난 인물들을 살펴 보려고 하였으나,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단오와 관련된 역사인물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보았다. 단오제에 추앙을 받는 인물[47]과 단오제에 추앙을 받지 않지만 단오와 관련 있는 인물로 분류하였다.

단오제라고 하면 그 대표격이 강릉단오제이다. 강릉 단오제의 제의 대상은 대관령국사서낭인 '범일국사'와 그의 부인이라는 '국사여서낭'이고 여기에 대관산신이라는 '김유신'이 어울린다. 그리고 대성황사에서 모시던 김이사부장군신, 창해역사신, 초당리부인신, 연화부인신 등 강릉과 유관한 인간신들이 단오제의 신판에 보조적인 신화의 대상으로 등장한다.[48] 강릉 사람들은 이들에게 우순풍조, 행로의 안전, 제액퇴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기원한다. 그 대신에 축제를 통하여 그 신들에게 헌공과 굿을 위무한다.[49]

그런데 강릉 단오제의 제의 대상은 인신이 많은 데 그 가운데 실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사람이다. 범일국사와 김유신, 그리고 김이사부 장군이다. 그밖의 인물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인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범일 국사의 부인인 국사여서낭은 대표격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일정한 연구성과가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50]

이에 따르면 국사서낭당은 후세에 음양론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즉 사람들은 범일국사가 스님이긴 하지만 부인이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세상의 이치인 음양설에 의하여 부인을 맞추어 주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음양이 조화되어 雨順風調하고 풍년이 오는 것 처럼 남편(陽)이 있으면 부인(陰)이 있어야 하고 그 둘이 결합하여야 생식력을 발동해서 그 감응으로 주변의 가축이나 곡식도 잘 되는 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설을 바탕으로 하여 홍제동여서낭과의 결혼이 성사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滄海力士는 힘이 장사로서 맹호를 생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힘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장량의 귀에 들어가 중국에서 맞아 들였다고 한다. 장량의 청에 따라 창해역사는 진시황을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였으나 화를 면하고 돌아왔다고 한다.[51]

이들이 설화상의 가공의 인물이라면 범일국사와 김유신은 실존인물로 후대에 설화가 더해진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관령의 대관산신으로 강릉단오제와 밀접한 관련들을 맺고 있다. 이들이 강릉 및 단오와 관련이 된 것은 어떤 역사적 근거에서 였을까?

먼저 범일국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범일국사에 관해서는 『조당집』에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을 소개 한다.

> 범일(810-889)스님은 통일신라시대의 선승으로 강릉의 학산(굴산)에서 신라의 귀족으로 태어났다. 성은 김씨이고 이름은 품일이라고 불렀다. 조부의 이름은 술원으로 관직이 명주도독에 이르렀으며, 어머니 문씨는 누대에 걸쳐 부자로 사람들이 부인의 모범으로 칭송하였다. 모친이 그를 잉태했을 때 해를 어루만지는 상서로운 꿈을 꾸고, 잉태한지 13개월만에 태어나 곱슬머리의 특이한 자태와 정수리가 진주 모양을 한 기이한 형상이었다. 나이 15세에 집을 떠나 경주로 갔다가 20세

---

47) 개천절에 단군을 제사 지내고, 제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칠석에 견우 직녀를 연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이다.

48) 김의숙, 강릉단오제의 근원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16, 2002. 본고에 나오는 설화의 인용, 그 밖의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못한 많은 부분에서 본고의 내용을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인용했음을 밝힌다.

49) 부락제,

50) 김의숙, 강릉단오제의 근원설화 고찰, 강원민속학 16, 2002.

51) 부락제, 62쪽.

때에 구족계를 받고 승려가 되었다. 그리고 서원을 세우고 당나라로 가서 '平常心卽道'라는 濟安大師의 가르침을 듣고 문도가 되어 6년간을 수련하였다. 이후 10여년 동안 중국 당나라에서 정진을 계속하다가 847년에 귀국하였으며, 명주 도독 김공의 요청으로 강릉에 굴산사를 세우고 40여년간 주석하면서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굴산파를 열었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등이 스님의 덕을 흠모하여 국사로 청하였으나 거절하였다. 갑자기 문덕 2년(889) 4월말에 문인을 불러 이르기를 '내가 장차 다른 곳으로 가니 지금 영결하고자 한다. 너희들은 진실로 속세 사람들의 얕은 뜻으로 난동을 피워서 슬퍼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닦아 종지를 추락시키지 말라'고 하였다. 그릭 5월 1일이 되어 오른쪽 갈빗대를 자주 보여 주다가 굴산사 상방에서 입적하셨으니 나이가 世壽로 80이요, 승랍이 60이었다. 시호는 通曉대사요 탑호는 延微지탑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범일국사는 강릉지역과는 출생시부터 대단한 연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범일국사의 출생지가 강릉인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에도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와 굴산사를 열었다. 더욱이 신라의 국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52]

따라서 범일은 강릉지역을 대표하는 정신적인 수호신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도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대관령 국사서낭당으로 추앙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후대의 영웅화가 진행되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여 구전된 강릉지역의 수호신으로서의 범일국사의 출생담이 다음과 같는 내용으로 전학 되었다.

신라때 강릉지역 학산(굴산)의 양가집에 한 딸이 있었다. 그녀가 아침 일찍 석천의 우물을 뜨려고 하는데 물 속에 둥그런 태양이 떠있는 것이 아닌가. 처녀는 아직 해가 뜰 때도 아닌데 웬일일까 이상히 여기며 바가지로 물을 떴다. 그러자 해가 다시 바가지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처녀는 목이 마르던 차라 그 물을 마셨는데 그때로부터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다. 여자의 집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큰일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딸을 가두고 아기를 뒷산의 학바위굴에 버렸다. 아기 엄마가 집에서 도망하여 굴에 이르니 여러 짐승들이 아기를 보호하고 맷돼지가 젖을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집안에서는 아기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고 데려와 길렀다. 그리고 해가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떴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름을 泛日이라고 했다.

아이가 일곱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없음으로 놀림을 받자 서라벌(경주)로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그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스님이 되었으니 범일국사이고, 강릉사람들이 스님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숭배하게 되었다.[53]

---

52) 이 밖에 국사와 굴산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굴산조사 범일이 태와 연간(827-835)에 당나라에 들어 갔다. 명주의 개국사에 이르니 왼쪽 귀가 끊어진 한 승려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사에게 말했다. '저도 또한 고향사람입니다. 집은 명주계 익령현 덕기방에 있습니다. 스님께서 후일에 본국으로 돌아가시거든 반드시 제 집을 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조사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승려들이 모인 곳을 두루 다니다가 염관에게 법을 얻고 회창 7년 정묘(847)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먼저 강릉에 굴산사를 세우고 불교를 전했다. 대중 12년 무인(858) 2월 15일 밤에 꿈에 전에 중국에서 보았던 승려가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조사와 언약이 있어 이미 승낙을 얻었는데 어찌 실천이 늦습니까?' 조사가 놀라 깨어 수십명을 데리고 익령현에 가서 그가 사는 곳을 찾아 보았다. 한 여인이 낙산 아랫마을에 살고 있어서 이름을 물으니 德耆라 했다. 그 여인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 겨우 8세였다. 늘 마을 남쪽 돌다리에 나가 놀더니 하루는 그 어머니에게 알렸다. '나와 함께 노는 아이 중에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뢰니 조사는 놀라고 기뻐하여 그녀의 아들이 놀던 다리 밑에 가서 찾으니, 물 속에 돌부터 하나가 있었다. 꺼내어 보니 왼쪽 귀가 끊어져 있어 전에 본 승려와 같았는데, 그것은 곧 정취보살의 불상이었다. 정취보살은 佛道不退의 보살로서 깨달음까지 퇴전함이 없이 정진하여 성불한 보살이다. 정토종에서는 정취보살이 아미타불에 구원되어 바로 부처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절을 지을 곳을 찾아보니 낙산 위가 좋으므로 세 칸을 징 불상을 모셨다.그 뒤 백여년만에 들불이 낙산까지 퍼져 왔으나 오직 관음과 정취 두 성인을 모신 불전만은 화재를 면했고, 나머지는 모두 타 버렸다.

53) 김의숙, 앞의 글에서 재인용.

위의 내용은 불교의 전승인 조당집과는 달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민간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물의 물을 퍼 담는 이야기는 김유신의 여동생의 꿈 이야기가 원형이며, 짐승들이 아기를 보고하고, 멧돼지가 젖을 먹였다는 대목은 전형적인 주몽설화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범일은 신화화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악 범일은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영우화되어가고, 외적이 침입이 있을 때 이적을 행하게 된다. 영웅으로서의 범일국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략) 범일국사가 강릉에 있을 때 왜란이 일어나 국사가 대관령에 올라가 술법을 쓰니 산천초목이 모두 군사로 변하여 왜군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같이 국가와 향토수호에 공이 큰 국사는 죽어서 국사 성황지신이 되었다고 한다.[54]

대관령산신은 조선 조초기의 사람 강릉 출신 굴산사의 승 범일국사이며 노후에 대관령으로 들어가 산신이 되어 그 영험자가 많고 강릉주민의 생명을 맡았으며 만일 성나면 어마인 호랑이를 보내어 인축을 해하고 또한 한발, 홍수, 폭풍, 악질 등 모든 재해를 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연고로 하여 범일국사는 강릉의 성황신이 되었다. 그런데 범일국사와 단오와의 관계는 불분명하다. 지금은 단오절에 대표격인 제의 대상이지만, 단오와 관련은 확인되지 않는다. 굳이 범일과 단오와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범일의 사망일이 5월이라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 5월이라는 것도 설화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보아 역사적 관련성은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강릉의 대표적인 행사가 단오제이고, 강릉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공헌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범일을 주신으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김유신을 살펴보도록 하자. 주지하는 바대로 김유신은 가야국 김수로왕의 13대손이다. 가야가 망하자 김유신은 신라에서 태종 무열왕과 함께 삼국통일 전쟁에 참전했던 인물이다. 김유신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열전에 많은 분량의 기록이 있고, 그 내용 가운데는 산신에게 비법을 전수 받았다는 등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다.

김유신은 출생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서 단오나 강릉과 직접 연결될 소지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김유신과 관련된 설화가 강릉지역에 전하고 있다.

> 신라 장군 김유신은 어렸을 때 명주에 유학하여 대관령 산신에게 검술을 배웠다. 그는 강릉의 남쪽에 있는 선지사에서 명검을 만들었고, 그 신통한 검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통일을 했다. 사후에 대관령의 산신이 되어 이 지방을 보호해 주었다. 임진왜란때는 대관령과 송정의 모든 소나무를 군사와 노적가리로 보익 하여 왜군이 근접치 못하였다.[55]

위 내용으로 보면 김유신과 강릉단오제와의 관련은 단오가 중심이라기보다는 강릉이 주가 된다. 그리고 그가 강릉의 신이 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서이다. 그의 군사적 탁월함이 경계지역이었던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였던 요소이었던 것 같다. 그가 강릉의 화부산에 있는 花浮山祠의 神主로서 제향을 받게 된 연유도 이와 비슷한 군사적 역량에

---

54) 김의숙, 앞의 글에서 재인용.
55) 김의숙,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의해서였음을 알게 된다. 화부산사에 있는 '순충장렬흥무대왕화산재기공비'에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 될 것이다.

> 말갈이 신라의 북변을 침입하여 괴롭히므로 문무왕은 원년(661)에 김유신에게 명하여 말갈을 정벌케 하였다. 이에 김유신은 하슬라주(강릉)에 출병하여 화부산 아래에 주둔하고, 오대산에서 무기를 만들었으며, 군대의 훈련은 팔송(송정동)에서 시키는 등 무력을 크게 과시하자 말갈이 두려워 도망치고 말았다. 김유신을 보고 말갈이 도망쳤으므로 현지 주민들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의 공덕을 잊지 않고 그가 세상을 떠나자 화부산에 사우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다.[56]

이와같이 강릉사람들은 김유신이 어려서 강릉에 거주하였던 인연이 있고, 자신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수호신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그리하여 대관산의 산신으로 모셨을 것이다. 이러한 김유신에 대한 대관산의 수호신으로의 추앙은 이미 조선 중기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 내(허균)가 명주에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오월 길일에 대령산의 산신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수리에게 이 사실을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신은 곧 신라의 대장군 김유신이며, 장군이 어렸을 때 여기에 유학하였는데, 산신이 검술을 가르쳤고, 그의 칼은 명주 남쪽 선지사에서 만들었는데, 90일만에 완성되자 광채가 달빛을 능가했다고 한다. 장군이 그 칼로서 고구려를 평정시켰으며, 죽어서 대관령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영험하기에 고을 사람들이 매년 오월초 길일에 향화를 갖추어 가지고 대령산으로 가서 부사에 모셨다가 오월 중순에 각종 잡희로써 즐기고, 산이 즐거우면 길상이 깃들어 풍년이 들고, 산이 노하면 반드시 풍수의 재해가 내린다고 한다. 내가 이상히 여겨 그 광경을 보았는데, 수많은 명주 사람들이 모여 구가하며 서로 경하하여 춤을 추었다. 나는 공이 생존시 왕실에 공이 많았고 삼국통일을 성취하였기에 죽은 지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능히 사람의 화와 복을 주는 신으로 나타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57]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김유신은 일찍부터 대관령산신으로서 추앙을 받았다. 그러나 김유신의 경우도 단오와의 관련성보다는 지역의 수호신으로서 추앙을 받았던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다. 위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이미 대관령신이 되었다가, 그 뒤에 매년 오월초 길일에 모신다고 하였다.

다시 위의 내용으 보면 김유신이 강릉 단오제의 제의 대상이 된 것은 이 지역에 들어온 말갈족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일국사가 이곳 출신이었던 데 비하면, 김유신은 가야 출신이므로 출생지와도 무고하다. 그런데 그가 이곳의 신이 된 것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민들을 대신하여 외적을 방어하여 주었다는 고마움 때문이었다.

강릉단오제의 제의 대상인 범일과 김유신은 강릉과 관련은 있으나, 단오와 직접적인 관련은 찾아지지 않는다. 중복해 말하지만, 강릉단오제의 제의 대상인 범일과 김유신은 단오라는 명절과의 관련성보다는 지역신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신의 성격으로 있던 인물들이 강릉의 명절이 단오이므로 이 날 최고의 지역신으로 숭앙받게 되었던 것을 여겨진다.

다음으로 단오제에서는 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단오와 관련된 인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

---

56) 김의숙,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57) 김의숙,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오절이 요즘과 같은 기념일이라면 이를 제창한 사람, 회장 등 여러 관련 인사들을 찾을 수 있겠으나 전형적인 농업사회의 전통적 제례인만큼 현대적 의미에서의 역사적 관련 인물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단오절에 태어났거나, 사망한 인물을 살펴보니 두사람이 찾아졌다. 굴원과 궁예이다.

굴원은 중국인인데, 단오날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궁예는 단오날에 태어났다. 먼저 굴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중국의 단오절 유래는 楚나라 懷王시대에 그 신하 屈原이라는 충신이 있어, 그 인격과 학식과 덕망이 훌륭하므로 이를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임금에게 모략 중상 모함 참언하는 일이 많아, 굴원은 자기의 깨끗한 지조를 보이기 위해 멱라수에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그 날이 마침 5월 5일이라 하여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굴원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 지내게 되었다는 고사가 있다. 그리하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대나무통에 쌀을 넣고 소태나뭇잎으로 감아 물 속에 던졌다는 풍습이 변하여 지금은 대나뭇잎으로 싸서 찐 떡을 먹는 풍습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를 작은 배로 구한다는 뜻의 놀이로서 일종의 보트경기인 용선경도가 현대에까지 전하여지고 있다.[58]

위의 내용대로라면 중국의 단오는 농경과 관련된 전통적인 행사라기 보다 굴원이라는 뛰어난 인물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궁예이다. 궁예는 중오일에 태어났다고 한다. 설화적 요소가 가미된 내용이지만, 그의 출생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중오일(5월 5일)에 외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그 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 [59]

위의 내용은 궁예의 출생이 단오였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이 날은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 빛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한다. 이러한 천문의 이상현상은 길조인가, 흉조인가를 불문하고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궁예의 출생일이었기 발생한 것인지, 단오날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이를 흉조로 파악하고 있다.

> ---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중오일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습니다. 또 광염이 이상하였으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하였다.[60]

위의 내용은 궁예의 출생에 대한 당시의 평가와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궁예의 출생을 극히 부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근거는 일관이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 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라고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르지 마시옵소서'라고 한 내용은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

58) 민속대사전
59)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60)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그리고 이처럼 태어나자 마자 죽여야 할 이유를 세가지로 집약하였다. 첫째 중오일에 태어났다는 것, 둘째 두 번째가 태어나면서 이가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광염이 이상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위의 일관을 평가를 보면 궁예가 국가에 이롭지 못하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단오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왜 단오날에 출생했다고 하는 것이 국가에 이익이 되지 못하다는 것일까?

당시 궁예가 정당하게 왕위계승이나 정당한 왕자로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궁예를 처단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설화로 꾸민 내용을 첨가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러한 설화적 요소가 가미된 내용은 궁예의 운명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신라 왕실과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궁예측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길조로 받아 들였을 것이다. 추정이긴 하지만, 하늘의 징조가 있어서 궁예가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상징은 양면성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어떻든 당시에도 단오는 특이한 날이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단오에 태어난 왕실의 왕위계승권자가 있다면, 왕위쟁탈전에서 유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궁예는 자수성가하여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비록 왕건에 의하여 축출 당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지만, 후삼국시대라는 혼란기에서 자신이 세력을 결집하여 가장 강성한 국가로 만들었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궁예는 단오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단오날 출생한 인물 궁예의 문화원형

전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단오와 직결된 인물은 사서에서 확인되는 바는 궁예뿐이다. 그런데 궁예는 지금까지 지극히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궁예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이루어 놓은 것보다는 그의 반대편에서 보는 부정적 시각만으로 일관해 왔다. 그런데 궁예의 일생을 보면 어떤 픽션도 이를 따르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만장하다. 그는 출생부터가 극적이다. 왕실의 후예이면서 살해의 국면을 당한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숨어 살다가 양길의 휘하에서 실력을 쌓게 되어 강릉으로 진입한다. 이곳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욱 서쪽으로 진출하여 왕건가를 제압하게 된다. 그리고 확대된 실력을 배경으로 자신을 키워준 양길을 패퇴시킨다. 그뒤 계속 정복전쟁을 진행하여 마침내 삼한의 3분의 2를 차지하였다고 할 정도로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호족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적인 왕권강화를 해나갔다. 그렇지만 이러한 궁예의 호족 억제를 위한 중앙집권의 수행에 불만이 많았던 왕건을 비롯한 호족세력들에 의하여 쫓겨나고 말았다. 이처럼 한 인간이 왕실에서 치하층으로, 다시 왕위에 올랐다가 부하로부터 배반을 당하여 비참하게 죽는 기승전결의 과정을 철저히 반복한다.

이와같은 궁예의 행적은 출생일인 단오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궁예를 죽여야 한다는 명분을 그가 태어난 단오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서에서는 궁예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편찬자의 의도에 맞도록 많은 각색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가를 재인식하여 올바른 궁예의 이미지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궁예는 단오에 태어난 인물로 그의 재인식을 통하여 새로운 단오인물에 대한 문화원형을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후삼국시대에 대한 정당한 평가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궁예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재인식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궁예를 국가에

대한 반역자, 그리고 왕건에게 멸망 당하였기에 나쁜 왕이라는 이미지를 벗겨야 한다. 그렇다면 궁예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와야 할까? 궁예는 단오라는 상서로운 명절에 태어난 하층민의 희망으로, 그리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가렴주구를 일삼던 신라에 대한 항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영웅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궁예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일면이 강했다. 단지 왜곡되었을 뿐이다. 예컨대 그의 출생에 대한 인식이다. 앞에서 인용하였지만, 다시 살펴 보도록 하자.

> 5월 5일에 외가에서 출생하였다고 한다. 그 때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빛이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 61)

이 날은 지붕 위에 긴 무지개와 같은 흰 빛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한다. 이러한 천문의 이상현상은 길조인가, 흉조인가를 불문하고 특이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궁예의 출생일이었기 발생한 것인지, 단오날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이를 흉조로 파악하고 있다.

> --- 일관이 아뢰기를 "이 아이가 중오일에 태어났고, 나면서부터 이가 있습니다. 또 광염이 이상하였으니 장래 국가에 이롭지 못할 듯합니다. 기르지 마옵소서"하였다.62)

그러나 위의 내용을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면 다른 이미지에 도달하게 된다. 예컨대 신라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농민이라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늘에 길다랗게 펼쳐진 광채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신라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궁예의 출생은 왕실로부터는 부정되었으나, 하층민들로부터는 희망을 예시하였다는 데서 단오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궁예의 행적을 추적하면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부합되는 흥미로운 사건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부석사 사건이다. 부석사 사건에 대한 삼국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일찍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흥주 부석사에 가서 벽에 그린 신라왕의 상을 보고 검을 빼어 쳤는데, 그 칼날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다.63)

위의 내용은 궁예가 반역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궁예는 부석사에 가서 신라왕의 화상을 칼로 쳤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을 것이다. 부석사라는 당대 최고의 호국사찰에서 신라왕의 얼굴에 칼질을 해댔으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이 사건은 신라의 입장에서는 대역무도의 죄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신라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층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쾌거였을 것이다.

따라서 하층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궁예는 이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

61)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62)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63) 『삼국사기』 권50 궁예열전.

많은 세력들을 규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892년에 처음 양길의 부하가 되어 시작한 군사적 활동은 불과 5년만에 그 세력이 송악(개성)에 이르게 된다. 이 무렵이면 궁예는 스스로 나라를 일으키고 왕이 될만 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궁예는 그의 정벌과정에서 강릉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궁예의 여러 지역 정복 양상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나타난다. 궁예는 여러 지역들을 무력으로만 복속시킨 것이 아니라, 자진 내부하기를 권유하기도 하였던 듯 하다. 따라서 궁예가 각 지역을 흡수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된다.

<표> 복속정벌지역에 대한 표현례

番號	年度	對象	表現用例
1	891	元會·申煊	友
2	892	北原東部落及溟州管內	襲
		酒泉等十餘郡	
3	894	溟州(何瑟羅)	入
4		猪足·狌川·芙若·金城·鐵圓	擊破, 擊取
5		浿西賊寇	來降
6		松岳郡	來投
7	896	僧嶺, 臨江兩	攻取
8	897	人物	降
9		孔嚴黔浦穴口等城	擊破
10		梁吉	擊
11	898	(以我太組爲精騎大監)楊州見州	伐
12		浿西道及漢山管內三十餘城	取
13	899	梁吉	進軍, 潰
14	900	國原·靑州·槐壤賊帥淸吉莘萱等	擧城　投
15		(命太祖)廣忠靑三州及唐城塊壤等郡	伐
16	903	錦城等十餘郡	攻拔之, 擊取
17	904	尙州等三十餘州	伐取
18		公州將軍弘奇	來降
19		浿江道十餘州	降
20	905	平壤城主將軍黔用	降
21		錦城赤衣黃衣賊明貴等	歸服
22	906	尙州沙火鎭	攻
23	909	珍島郡	降
24		皐夷島城	破
25	910	萱	襲破

앞의 자료를 토해본 弓裔의 征伐形態는 크게 세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무력에 의해 '擊破, 擊破'등으로 표현된 地域, 둘째 자진해서 투항해 오는 '來投, 來降, 降, 歸服' 등으로 표현된 地域이다. 셋째 유독 '伐'로 표현된 地域이 있다. 이 밖에 '入'등으로 표현된 地域이 있다.[64]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독 '入'이라고 표현된 예는 명주(강릉)지역 뿐이다. 명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궁예를 영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궁예는 자신의 군사력이 3,500명 이상으로 확대되는 성공을 거둔다. 이 뒤로 궁예는 계속하여 강릉지역을 자신이 가장 믿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듯 하다. 궁예가 몰락한 뒤에도 궁예의 추종세력으로 여겨지는 김순식은 왕건을 따르지 않다가, 김순식의 아버지인 허월의 중재로 겨우 왕건과 제휴할 정도로 궁예와의 관계가 밀접했다. 왕건도 김순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제와 같다고 하는 대등한 위치에서 '왕'씨 성을 주는 등 최고의 예우를 다하였다.

이처럼 궁예의 단오와 강릉과 연결된 이미지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강렬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살려 궁예를 강릉단오제와 결부시켜도 크게 무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보인다. 현재는 궁예를 철원의 인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궁예의 도읍이 철원이었고, 실질적으로 궁예가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하여 선정한 도시가 철원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를 창업하여 왕이 된 궁예를 철원의 지역 인물로만 국한시킨다는 점도 만족스럽다고 볼 수 만은 없다. 궁예의 정복지역은 북으로는 평양 북쪽에서 안변에 이르는 선이며, 남쪽으로는 전라도 서남해안에서 울진에 까지 이르는 지역이었다. 실제로 궁예는 이 일대에서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전개해 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궁예는 향토인물이라기 보다는 국가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궁예는 전국적인 인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궁예와 관련된 설화도 안성, 파주 등 한반도의 중부 지방에서는 상당 수 발견되고 있다. 특히 안성 지역에 궁예와 관련된 지명과 유적 설화가 많은데, 이 내용들은 삼국사기 등의 정사류에서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안성 국사암의 궁예미륵이라고 불리는 삼미륵이 있는데, 중앙은 궁예미륵이고, 좌우는 그의 아들인 신광보살과 청광보살이라고 한다. 마을 이름으로는 진촌리와 강촌리가 있는데, 진촌리는 진골인 궁예가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강촌리는 그의 부인의 성인 강씨들의 집성촌이 있었기 때문에 불려지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다. 이곳에서 가까운 왕자골은 강씨가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이처럼 정사류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구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궁예에 대한 당시 하층민들의 애절한 희망이 그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자, 기록으로는 남기지 못하고 입에서 입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궁예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의 인식과는 달리 당대인이나 관련 인물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았던 것이다. 실제로 평강에는 궁예를 제사지내던 사우가 1930년대까지에도 존속하고 있었다. 최남선은 「풍악기유」에서 자신이 확인한 '태봉전우'와 같은 궁예를 모신 사우를 확임했을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대에서는 여전히 '구례왕'이라고 부르면서 궁예를 추앙하고 있음도 부언하였다. 이 사당은 영험한 사당으로 소원을 잘 이루어져 지역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새롭게 부각된 궁예의 이미지는 우리 역사에서 혼란기를 수습하려고 했던 영웅들의 전형적인 삶의 한 형태로 문화원형으로의 복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64) 이재범, 후삼국시대 궁예정권 연구, 혜안, 2007.

마다 이루지 못하고 사라진 영웅설화가 많다. 난세에 출현하여 하층민들을 구제하여 주는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배어 있는 설화들이다. 궁예에 대한 재인식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집적하여 문화원형의 하나로 궁예를 복원하는 것은 단오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일의 하나일 것으로 믿는다.[65]

확대해석일런지 모르지만, 궁예의 생존시에 단오는 굉장한 국가명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예가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의 단오에 관한 기록이 전무하므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오에는 사면과 하사 등 여러 백성 위무 차원에서의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궁예는 양길과의 전투가 끝나자 팔관회를 베푸는 등 하층민들의 사기를 돋우는 정책들을 펼쳤다. 팔관회는 불교행사의 성격도 있으나, 토속적인 신앙과 관련이 있으며 전몰 장병 위로 차원의 행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궁예는 성황을 관장하는 기구도 두었다. 이처럼 궁예는 전통적인 사상과 결합하고, 하층민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농민들의 명절인 단오를 중시하였을 것이며, 특히 자신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크게 부각시켰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4. 결어

단오와 관련된 역사인물들을 찾아 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실존 인물을 확인하여 보고, 단오와의 관련성을 추구하여 보았다. 아울러 그 가운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인물은 문화원형으로 복원하여 미래의 한국 문화의 내용으로 어떻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단오와 관련이 있는 실존인물들은 모두 5인이 찾아졌다. 그 5인은 범일국사, 김유신, 김이사부, 궁예와 중국인으로 굴원이 있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탐색하면, 더 많은 인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궁예를 제외하면 단오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고 하기 보다는 지역신으로 존숭을 받다가, 지역의 최고의 명절인 단오때 지역신의 자격으로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한편 궁예와 굴원은 단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우리나라의 예는 아니지만, 굴원은 단오에 죽었다. 그리고 궁예는 단오에 태어났다. 그런데 단오에 궁예와 관련된 행사는 아무데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 궁예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그러나 궁예는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의 경험자이며, 여러차례 신분의 변동을 겪으면서도 왕위에 올랐던 인물로서 한국사상 보기 드문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를 단오와 관련된 대표격인 인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아마도 궁예 때 단오는 굉장한 명절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보았다. 자신의 생일이면서 전통적인 명절이었기 때문이다. .

더 나아가 궁예는 단오만이 아니라 강릉과도 매우 밀접한 지역적 정서가 있음을 확인하여 보았다. 궁예는 자신이 강릉에 들어올 때 '入'이라고 하여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들어 온다. 궁예가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군사력을 동원하였던 것과는 달리 강릉에서만이 아무런 군사적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영입되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궁예의 군사력은 크게 확대되고, 본격적으로 자립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강릉세력은 궁예 몰락후에도 쉽게 왕건에게 귀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단오에 태어나 강릉과 연결된 궁예에 대한 한국문화원형으로서의 복원은 매우 절

65) 현재 철원의 태봉제는 10월에 열리고 있다.

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궁예의 출현은 마치 난세에 영웅을 바라는 백성들의 희망을 담은 영웅설화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정사류 사료들은 궁예를 비정상적인 인물로 서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궁예를 한국문화원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궁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궁예에 관한 사료들은 해석에 따라 하층민들의 희망의 멧세지로 바뀔 수 있다. 또한 비교적 풍부한 궁예와 관련된 설화들은 그가 단오에 출생한 국가의 반역자가 아닌, 하층민의 질곡을 신라로부터 풀어 줄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인물은 지나치게 선악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 결과 우리의 역사인물은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대별되어 반목하는 경향이 있다. 궁예와 같은 인물의 재인식을 통한 문화원형 복원은 다른 인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